내 탓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자식이 따로 없더라.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내 생명이 따로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더라. 이 모든 자리도 네 자리 내 자리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크고 작음이 둘이 아니요, 모든 일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천지 인 삼대, 삼심이 다 일심이니 그 일심이 바로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지만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그랬으니 여러분도 바로 지수화풍 네 가지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을 용도에 따라서 충만히 끌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요소가 또 대두돼 있고, 맘대로 끌어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오신통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천이통, 이것은 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듣지 않는 데서 들을 수 있는 거를, 모든 데서 말입니다. 또 마음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거를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신족통을 지금 용어로 팩시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되겠죠? 타심통을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남의 마음을 아주 상세히 아는 걸 말합니다. 숙명통은 과거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로부터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보는 거와 같은 거니까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아무리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아주 빤하게 다 일거일동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로부터 어떻게 나온 거를 아주 손살피 알아도 이것은 도가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섯 가지를 볼 때에 우리의 이 몸뚱이, 통 속이라고 합니다, 통 속. 우리 몸뚱이를 통 속이라고 그럽니다, 몸뚱이 안. 만약에 몸뚱이 안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면 통 안에서 내 몸뚱이를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바로 이 우주의 모든 섭류를 자유롭게 굴릴 수가 없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을 탁, 그 다섯 가지에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야만이, 즉 말하자면 누진, 지금 시쳇말로 레이더망이라고 그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지마는 말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전부 책정하고 통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누진에서,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누진의 작용으로, 즉 말하자면 양면의 작용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누진이라고 합니다. 누진에서는 맘대로 들고 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그런 것들을요. 그러한 모든 그 핵심의 에너지 여건을 주기도 하고 내가 용도에 따라서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한다면 이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목마르면 자기도 마실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무리 봤어도 갖다가 먹을 수 없다면, 쓸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요, 듣고 자유스럽게 그것을 작용을 못 한다면 들으나마나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가고 오나마나 모두가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내 몸뚱이 속에, 이 정신력에 다 있으니까 눈이 간 데 귀가 가고, 귀가 간 데 냄새가 가고 결정이 가고 부딪침이 가고, 모두 이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회 의식에 있었던 반야심경에도 바로 '둘이 아니어서 고정됨이 없어서 없다' 고 그랬죠? 그 모두가 내가 아무리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목마른 생각이 있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알면 아무 말 없이 물 한 그릇 푹 떠서 탁 주고 탁 자기 먹고 '아! 이만하면 목마른 것을 시원하게 축였구나. 이만하면 목마른 갈증이 없을 것을….' 하면 그뿐이지 거기 뭐가 이론이 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에 묶여 있는 것이 오신통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소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지금 대변이 마려워서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똥을 팍 싸 놓고 봐야 그때 인제 뭐든 생각나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거든지 거기에다, 자가발전소에다 대기만 하면 다 그냥 타 버리니까. 나쁜 것도 타 버리고 좋은 것은 승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보세요.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돼서 나가죠? 넣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이 작업만 잘한다면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올 것이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올 것인데 구태여 왜 걱정을 하고 지냅니까? 이 세상에 한번 나서 캠핑을 왔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만 알면 잘 다스려서 부드럽게 잘 행동하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증오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한 가정에서 한 철 나다 간다 하더라도 부질없이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한 철 나러 왔다가 웬 싸움입니까? 그리고 한 철 나러 왔다가 다 놀면 소꿉장난 놀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건데 그거 왜들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도, 자식과 부모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은 거기다 맡기고 서로를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통해서 서로 한방에 불이 들어오듯 그렇게 에너지에 불이 당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일이 성립이 잘되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유전성이 없어지니 좋고 이거는 모든 일거일동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여튼 강하고, 그저 말도 다스리지 않고 속상하는 대로 탁탁 내뱉으면 뱉는 대로 이 속에서도 그대로 내뱉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의 그 의식들이 그대로 따르니까요. 그리고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자꾸자꾸, 이거는 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내 안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 마세요. 세균성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나가서 끌고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집을 비워 두면 자손들이 친구들하고 막 들어와서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이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냥 뭇 의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난장을 벌이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도 주인이 없이 아마 일 년이고 이태고 십 년이고 그냥 놔둬 보십시오. 거미줄이 슬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그 기둥을 달리



지금 대변이 마려워서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을 것도 못 되고 허공을 믿을 것도 못 됩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쳇바퀴에서 좀 훨훨 벗어나고 싶진 않습니까? 중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이건 중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진리가 다 그러합니다.

한 핵심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한 핵심에 과학도 의학도 모두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가설이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를 이 핵심 속에서 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굴리고 돌아갈 때에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려니 알아야 끌어 쓰죠. 아, 숟가락을 갖다 주고 먹어라 해도 못 먹는데, "숟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떠먹을 게 보여야 떠먹죠." 요러는 걸요. 하하하.

아, 전력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믿죠? 그렇게 믿듯이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도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신념을 가지세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루라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깔도 없고 쥘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대의적인, 즉 이름입니다.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그 용도를 가지고, 또는 대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또 출현할지 그것은 또 그다음 일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얍삽한지 남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걸로 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면 좋은 거를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섭류가 한데 동시에, 우주법계가 한데 합치는 마음입니다. 그저 남에게 그냥 준다고 해서 이것이 공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이 모두가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다면 남을 원망 안 합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남을 원망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이니까,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고 말 상대가 있고 인연이 돼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이 나중엔,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 탓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리니까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러 오고 외려 더 친절해졌다는 사람들이 하고많습니다. 이건건이 살아나가는 데에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가정도 그렇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왜 하느냐 하면 모든 게 그 살림살이에서, 모두 그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들이고 내고 하고 가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몽땅 줘서 생각을 해 버리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6월 28일 국외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